" 피해자와 가해자 "

- 水質保護 對國民 弘報 映畵 -

韓 國 水 資 源 公 社

水資源 專門 機關으로서 韓國 水資源 公社가 생명의 근원인 물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수자원의 중요성을 일깨워 수자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를 통하여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우리의 江山을 더욱 아름답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질 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無意識的으로 물을 오염시키는 우리 모두의 생활 양식 개선을 위하여 水質保護 弘報 映畵 "피해자와 가해자"를 企劃·製作하게 되었다. 또한 韓國 水資源 公社가 '91 년도에 公社 創立 23 周年을 맞이해 7월 1일을 "물의 날"로 정하는 한편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물 주간"으로 지정하고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수자원의 유한성과 물의 귀중함, 그리고 수자원 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우리나라 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물 심포지엄, 수자원 보전상 시상 및 물백일장, 물사진 전시회, 수질보호 캠페인, 유역 주민 간담회, 수질보호 홍보영화 제작 상영 등 각종 행사를 서울을 비롯 적국 8개 다목적댐과 7개 용수관리 사무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92년에 제 2 회를 맞이하고 있다.

본 영화도 '91년 7월 제 1 회 "물 주간" 행사시 상영을 목표로 제작되었으며, 수질오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전달보다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공감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되었고 하나의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교육적이며, 사회 고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은 16 ㎜ 필름 30 분품으로 중견 영화 제작업체인 한국영상의 작품으로 인기배우들의 출연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은 물의 오염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에서 나로부터라는 인식과 우리 모두가 물 오염의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라는 인식의 전환에 촛점을 맞추었다. 또한 수자원이 산업화와 도시화로 점차 병들어 가고 오염되는 과정에서 이 영화는 남의 일로만 알고 지내던 수질오염 문제를 부주위로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생활 주변의 사건 전개를 통하여 수질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고발하고 있다. 또한 대국민 홍보를 위하여 VTR 테이프로 복제되어 전국 각 시·도 공보실과 각 시·군 교육 위원회 등에 배포되어 우리의 수자원을 맑고 깨끗하게 보존하고 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등의 대국민 홍보용으로 활용되고 있다.